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후에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18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설 명절 관계로 집회는 없지만 주보에 있는 자료를 목상하며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설날 가정예배를 돕기 위한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가정 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22일)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2014학년도 청파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예배 관계로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중구용산 지방회가 다음 주일(22일) 오후 3시 만리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율2:1-2,12-17 / 시51:1-17	2부 예배	요 8:21-30
예배	고후5:20b-6:10 / 막1:9-15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송형운 김종술
 다음 주 식당봉사 : 없음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없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갈피를 잡지 못하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일로 들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이들의 가족이 되어 그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의 표본이 되어버린 정치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잘못마저도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영님 김용길 최영혜 김훈동 유경순 문복순 박예림 박종철 임옥기
 서수진 송인선 송형운 하미림 심화섭 정영란 유금주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국노 김미화 이근식 신영신 이미희 이윤석 박안수 이정은
 임호성 장동훈 정은선 장혜정 정영례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최옥자
 최은미 한기택 허명선 허신열 허준호

감사헌금

강미선 권채영 한훈식 김진중 김태정 박석희 조항미 박성희 박창운
 허정윤 신진식 변혜정 오민용 이범석 류정욱 이수연 이자애 정종삼
 주현철 최미자 무명10

생일감사헌금

이은빈

녹색꿈헌금

김혜영 이승지 이오복 황현성 이재문 무명6

	백혜숙 신진식 장영숙 박홍재 권미숙 김금순 곽권희 안홍숙 김경혜 박혜경 김재홍 김재홍 이범석 이범석 신진식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박홍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홍춘숙 박혜경 오자영 송형운 이진영 곽상준 이오복	연합속회	총
--	---	---	------	---

찬양대원

성가대장: 안종일 / 지휘자: 윤주원 / 반주: 최윤선 유청빈

소프라노:

이경희 이부곤 홍순복 오현정 정현주 홍예선 박예림

메조소프라노:

구명자 송양진 박성희 김재영

알토:

장은숙 정옥영 최성애 박경선 홍선희 윤윤

테너:

한상의 안길상 이종현 심해성 이광섭 장재영 조관행 정다운

베이스:

김근중 이광석 정종삼 장원호 조항범 이한림 안종일 박규석 변상철
박상욱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의식과 정신이 늘 높은 곳을 향하도록 사십시오. 그러나 일상은 늘 낮은 곳을 지향하며 사십시오.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일상의 낮은 자리에 높은 하늘의 빛과 온기를 전하며 사십시오.

아멘. 세상의 높은 자리를 욕하는 동시에 결눈질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늘의 높은 자리를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수요 집회 / 섬
	수요저녁성경연구 / 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근중 권사	하진솔 선생 조항미 집사

2	영접위원	박홍재 박범희 박석희 박미영 조항미 최은미
	헌금위원	김인걸 백혜숙

절기 안내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올해는 2월 18일)

사순절 첫날로 사순 제1주일 전(前) 수요일입니다. 이날,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나 손등에 재로 십자가를 긁습니다. 이 재는 지난해 고난주간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만듭니다. 목사나 사제는 교우들에게 재로 십자가를 그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재는 철저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도울 수 있는 교독 기도문을 하나 소개합니다. 재의 수요일 중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흙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먼지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한 줌 재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육체와 물질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의 삶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흙에서 난 동료 피조물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탐욕을 버리게 하소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분노를 버리게 하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받으라”하시며 내선 숨을 제게도 불어주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흙과 생명, 땅과 하늘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신비와 저항 수도원의 재의 수요일 교독문 중에서)

사순절 Lent (올해는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모세와 엘리야, 특히 예수님의 광야 단식 일수에서 유래했고,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끼, 저녁만 먹되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단식은 완화되었고, 사순절을 단식기간으로 지키기보다는 구제와 경건훈련의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더불어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사순절 달력의 빈칸을 채워 하루하루 함께 성경묵상도 하고 신앙실천도 해보세요.